

# 빛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 이제는 세계를 꿈꾼다!



'전기 없이도 작동하는 피난유도선', '와이어리스(무선) 피난유도선' 바로 (주)알지비테크놀로지(회장 조성복)의 제품이다. 발광시트 전문생산업체인 알지비테크놀러지는 그 동안 알지비테크놀러지는 발광시트를 이용하여 기존 비상등 및 축광 표지판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인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 짙은 연기에서의 시인성(연기속 시각효과)과 유도능력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 2010. 5. 12 ~ 5.14간 이뤄진 '201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 지하철화재 대응훈련부문에 참가하기 위하여 '와이어리스피난유도선' 을 몽촌토성역 설치로 그 첫 선을 보였는 바, 국내외 재난안전관련 업계로부터 최고의 찬사로 주목을 받았고, 이에 제품관련 문의와 상담이 폭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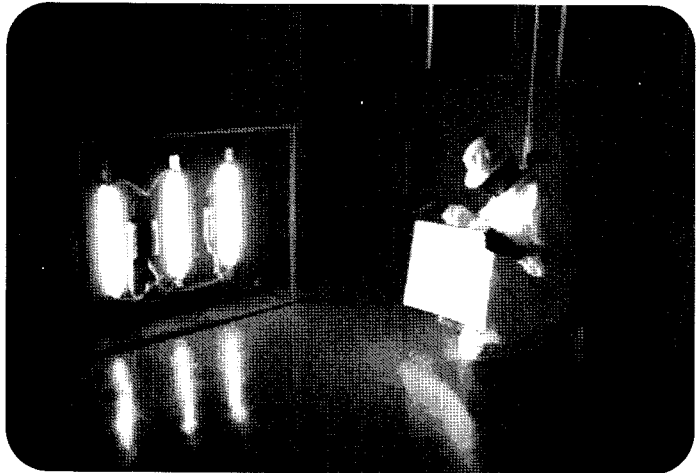
(주)알지비테크놀로지(회장 조성복)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업계의 선두주자로 대면적 발광시트로 전문기업으로는 세계 최고를 생산해 낸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아직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인 '대면적 발광시트', 쉽게 이야기 하자면 필름에서 빛이 발산되는 차세대형 제품이다.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2006년 본격적인 창업을 시작,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현재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냈다. '와이어리스피난유도선' 을 포함하여 12개의 특허(출원포함) 및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는 알지비테크놀러지는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Flexible Display) 업계의 세계적 비상을 꿈꾸고 있다.

◎ 발광시트란?

얇고 투명한 소재인 필름(투명전극, TCO)에 기술적 과정을 거쳐 전기를 공급하면 빛을 발산하는 원단을 말한다. 발광하는 원리는 전계발광(Electro luminescence)이라 하는데 형광층을 사이에 두고 전계를 강하게 가하면 형광 물질 내의 전자가 가속되어 고에너지 전자가 발산되어 이에 의해 발광되는 현상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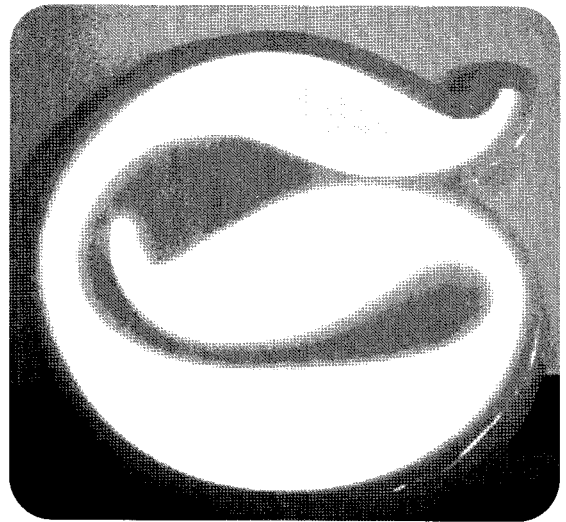
특·장점으로는 얇고(Slim, Thin) 가볍고 깨지지 않는 등 물리적 충격에도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 기존의 형광등이나 LED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며, 초박 저전력, 비발열식 광원으로 뛰어난 선명도로 경제성 및 에너지절감 효과면에서도 탁월하다. 이 밖에 빠른 응답속도, 넓은 시야각, 특히 디자인과 형태가 자유로운 플렉시블(Flexible)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발광시트 실험모습

◎ 다양한 적용분야

광고디스플레이, 전자제품, 인테리어, 조명, 도로 교통, 건축, 군수산업 등 빛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발광시트의 특성을 활용한다면 보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소재로 제일 빨리 적용될 수 있는 분야중 하나가 바로 '광고와 인테리어, 산업안전용품 시장'이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광고시장, 그 동안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항상 갈망해 왔다. 현재 알지비테크놀러지의 주력 마케팅 분야중 하나가 광고 및 인테리어시장이다. 각종 X배너, 광고 포스터, Back Light, Pop-Sign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전시관, 체험관, 대형쇼핑몰 인테리어 등에도 각광을 받고 있다.



▲ 옥외용 광고디스플레이 예시(GS)

## ◎ '와이어리스 피난유도선' 세계적으로 인정받다!

'피난유도선'은 화재 및 정전 등 유사시에 연기나 어둠 속에서 전류로 빛을 발산해 원활한 대피를 도와주는 피난시설로 지난 2009년 5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인 공연장, 의료, 관광숙박시설, 지하상가, 지하철역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알비테크놀로지는 발광시트를 이용하여 기존 비상등 및 축광표지판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인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 짙은 연기에서의 시인성(연기속 시각효과)과 유도능력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전기 없이도 작동하는 '와이어리스 피난유도선'은



▲ 몽촌토성역 '피난유도선'

두께 5mm의 박막형 발광제품으로, 수명시간이 반영구적이며, 외부충격에 강하며,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전력 0.25mA/cm로 에너지 절감 효과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및 관공서, 지하철역내, 산후조리원, 병원, 극장, 영화관 등의 소방피난시설로 '와이어리스피난유도선'은 보다 국내외 관련업체로부터 우수하고 효과적인 제품으로 평가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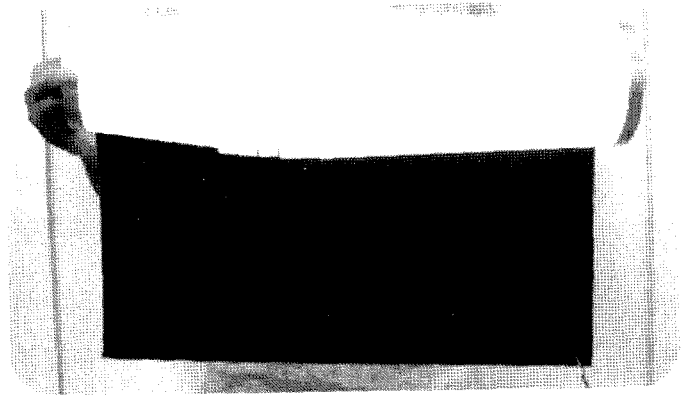
금번 '와이어리스피난유도선' 출시와 함께 국내 및 해외에 각종 재해 재난에 따른 안전시설물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매년 국내시장 연간 200억 이상 매출, 해외시장 연간 1,000만\$ 이상의 수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곧 서울 보라매공원내 신축중인 '시민안전체험관'에도 지하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 및 대피를 할 수 있는 '와이어리스피난유도선'을 설치할 계획이라 한다.

## ◎ 기업경영은 '휴머니즘'에서부터 시작

휴머니즘 즉 인본주의(人本主義)에서 시작된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오면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다. 모든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튼튼한 회사를 만드는 것도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을 거쳐야 탄생된다. 바뀌 말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 분야의 선도적 기업으로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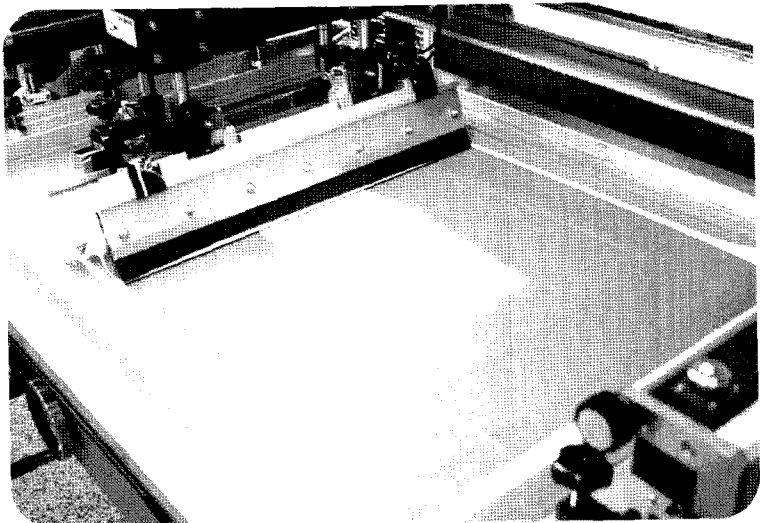
알지비테크놀러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미래 차세대 유망사업으로 선정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 분야에 선도적 역할로 세계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3년 이면 형광등이 사라진다. 따라서 발광 시트로 형광등을 대체할 차세대 광원 산업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투명전극(ITO, Indium Tin Oxid) 개발, 대체형광물질 개발과 함께 동영상용 Flexible Display 및 Converter, Inverter 개발과 고휘도(800cd/m<sup>2</sup>) 이상급 발광시트 개발을 목표로 한다.



▲ 원단을 말아도 빛이 발산되는 기술

◎ 국내 시장의 내실을 기반으로 세계 진출을 모색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매출이다. 지난 '201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하여 지하철역에 설치한 '와이어리스피난 유도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듯이, 국내 판매망 확충을 통해 시장에서 인정받고, 더불어 매출 향상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 외에 최근 해외에서도 Agent 문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바, 해외 판매망 확충 준비도 주력할 것이다.



▲ 자동화된 제품생산과정(증착단계)

또한 회사의 주력 상품인 대면적 발광시트를 통한 광고시장의 적용 확대와, 현재 명품관 아울렛 매장 인테리어 납품 계약으로 준비가 한참이다. 이에 따라 금년 말쯤이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